

미코바타 주철교와 하부치 주철교는 각각 1885년, 188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아케노베와 미코바타에서 채굴 및 선광된 광물을 이쿠노로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석의 길' 중간에 있는 하천에 놓인 이 다리들은, 채굴 기술의 향상으로 수송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광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주철로 제작되었습니다. 미코바타 주철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전체가 주철로 제작된 다리이며, 철제 다리로는 3번째로 오래된 다리입니다. 원래 '광석의 길'에는 5개의 다리가 놓여있었지만, 지금은 미코바타 주철교와 하부치 주철교만 남아있습니다.

1995년 태풍 피해를 입어 수리가 필요했고, 홍수 방지를 위해 하천 확장공사가 진행되면서 하부치 주철교는 현재 위치로 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코바타 주철교는 지금도 같은 자리에 남아있으며, 1977년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